

USDT 영구 계약 거래

USDT 본위 영속 계약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으로, 사용자가 등락을 판단하여 많은 계약을 매입하거나 빈 계약을 매도하여 디지털 자산 가격 상승/하락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. 담보 자산 현물 시장과 유사하게, 그것은 USDT로 가격을 계산하고, 가격이 표적 참조 지수 가격에 근접하며, 현물 가격을 고정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자금 비용이다. USDT 본위 영속 계약은 결제일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.

USDT 기반 영구 계약 시장의 메커니즘:

담보자산률과 강제정리: 담보자산률이 0보다 작고 같을 때 참고위치는 강제정리를 촉발한다.

참고별 담보자산률=계좌권익/점용담보자산*100%-조정계수

전체 참고 담보 자산 비율 = 계좌 자기자본/Σ전체 참고 계좌 모든 계약의 (점용 담보 자산 * 조정 계수)-100%

디지털 화폐 계약 거래의 역할:

1、 헤지, 위험에 대한 헤지의 역할

현재 계약은 주로 사용자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, 작은 크기와 위험에 대한 헤지이다. 작고 큰 편리함으로 이해하는데, 즉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, 계약을 채택하여 리스크 헤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부를 위주로 하며, 리스크 헤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.

만약 BTC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선물은 손해를 볼 것이고, BTC의 수량은 줄어들고, 총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.

만약 BTC의 가격이 떨어진다면, 선물은 돈을 벌고, BTC의 양은 더 많아지며, 총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.

선물시장에서 현물과 품종과 수량이 같지만 방향이 반대되는 선물계약을 매매한다.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 시장의 이윤으로 다른 시장의 손실을 보충한다. 선물의 가격은 현물가격과 경제요소의 공동으로 제약을 받고, 결제메커니즘의 존재가 있으며, 장기적으로 보면 선물과 현물가격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.

그 외에도, 계약이 있으면 가격이 일방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, 상반된 힘이 가격을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고, 현물 시장 가격을 통제하여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인 가격을 이성으로 돌려놓게 할 것이다.

2、 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 기관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된다.

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, 대형 거래소들이 파생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이러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었다.

3、 거래 방식을 확장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권을 쟁탈하다.

계약 거래는 가상 자산 거래 전략을 다양화시켜 빈 것도 많이 할 수 있다. 동시에 현물 시장과 계약 시장이 서로 유도되어 전체 디지털 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.